

[제2017-10호]

 한국문화원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3쪽
배포일시	2017. 2.28 (화)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사랑을 전하다 (Express My Heart) 전시회 개최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으로 작품 속에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녹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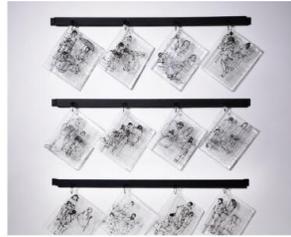
- ▶ 전 시 명 : 사랑을 전하다 (Express My Heart)
- ▶ 일 시 : 2017.3.10(금)-3.23(목)
- ▶ 개 막 식 : 2017.3.10(금) 7:00p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 ▶ 참여작가 : 안진의, 최진희, 미셸 오, 해리엇 자이틀린(Harriet Zeitlin)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3월10일 부터 3월23일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한국, 미국, 그리고 재미동포 작가가 참여하는 4명의 그룹 작가전 <사랑을 전하다> 를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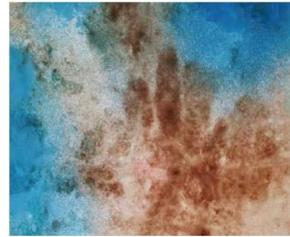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각자 서로 다른 장르와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사랑을 작품 속에 나타내었다. 출품된 작품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 자연과 삶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작가들의 사랑이 담겨있다.



안진의
빛의 정원, 97 x 162.2 cm



최진희
감사 노트, 18.5 x 24.3cm x 7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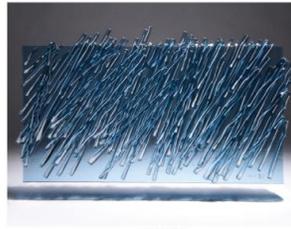
미셸 오
The Touch 1608, 26(w) x 36(L) inch



해리엇 자이틀린
조이, 8 x 8 inch x 12pcs.



안진의
꽃의 시간, 53 x 45 cm



최진희
겨울비, 75 x 45 cm



미셸 오
The Touch 1610, 22 x 29 inch



해리엇 자이틀린
전통 75 x 18 x 18 inches

안진의 작가(한국)는 전통적인 한국화에서 사용하는 석채(Stone Powder)를 주재료로 혼합하여 한지 혹은 캔버스에 꽃을 그려나간다. 특히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색감으로 꽃을 그려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꽃의 아름다움에 홀리게 한다. 그러한 꽃을 그려내기 위하여 오랫동안 오대산 국립공원 한국자생식물원에 드나들었다는 안작가의 작품에는 무수히 많은 꽃잎들이 화폭에 펼쳐져있다. 그 꽃잎들을 안진의 작가는 향수, 그리움, 희망의 빛깔로 채색된 우리 마음의 우주라고 표현한다.

최진희작가(한국)는 아침 이슬로 덮힌 여린 아름다운 풀잎을 표현하기 위하여 유리 작업을 시작하게되었다. 유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유리가 빛을 품고 있는 것 같지만 빛을 통과 시키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또, 그 빛을 통해 유리의 존재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랜 작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신도 그렇게 깨지기 쉽고 연약한 유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지만, 작품을 통해 감사와 따뜻함과 밝음이 보여지는 맑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미셀 오 작가(재미동포)는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환희와 슬픔의 애환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다. 매일의 일상 속 순간 순간마다 끊임 없이 다양한 생각의 문을 넘나 들며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자취와 고뇌의 상념들은 우리의 모습을 조각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진다.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많은 생각과 삶의 흔적들..... 아름다움도 기쁨도 아픔마저도 내 속에 녹아서 ... "Touch" 라는 테마 작품은 "The touch of heart"를 줄인말로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해리엇 제이틀린 작가(미국)는 60 여년동안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해온 LA 유명 여성 작가이다. 유화, 판화, 퀼트, 사진, 조각 등 미디어와 재료의 경계를 넘나들며 수 많은 작품 활동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 내놓은 그녀의 작품 주제는 한국계 유태인인 손녀딸 조위에 대한 사랑이다. 그녀는 유화, 콜라주, 드로잉, 설치 작품을 통하여 그녀의 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손녀 시리즈 작업은 그녀에게는 작품 활동을 하는 내내 아주 도전적이었으며 또한,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였기에 이번 전시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은 “ 저희 문화원은 항상 우리의 이웃인 다른 커뮤니티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는 한편, 우수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사랑을 전하다> 전시는 2017년 3월10일(금)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3월23일(목)까지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참여 작가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로 하면 된다.